

자비의 특별 희년 교구장 담화문



인자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2코린 1,3)이신 주님께서 모든 교구민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4월 11일에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는 칙서 『자비의 얼굴』을 반포하시어 2015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로부터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를 ‘자비의 특별 희년’으로 지내도록 정하셨습니다. 성하께서는 이 희년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뚜렷한 표지”(『자비의 얼굴』 3항)가 되어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 하느님을 세상에 더욱 힘차게 선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비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고자 노력함으로써 그 자신이 참된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용서와 관대함의 자취가 날로 희미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자비의 관리자요 분배자”(11항)가 되어 희망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聖門)을 여시는 교황님과 결합하여, 저도 오는 대림 제3주일에 주교좌 계산성당의 문을 열며 주님의 은혜의 해가 열렸음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희년(禧年)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빚을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하며 담보로 잡은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해였습니다(레위 25,8~10 참조).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에 구약 백성들은 사람의 제도나 관습 때문에 어그러진 하느님의 질서를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고자 했습니다. 교회는 이 희년의 정신에 따라 25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성년(聖年)을 선포하여 대사를 베풁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로 이 주기와 상관없이 성년을 선포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자비의 특별 희년’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교황님께서 이 특별 희년이 단지 대사의 은혜를 받는 기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희년의 본래 정신은 자비이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질서도 자비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입은 자비는 형제들에게 “매정한 중”(9항, 마태 18,23~35 참조)이 되지 말고 오히려 자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행동 양식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 교구장 담화문

사랑으로 완성된 정의는 보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베풁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용서”(20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성사를 통해 용서하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일은 이 자비의 희년에 특별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교구의 모든 사제들이 하느님께서 맡기신 이 직무에 더욱 충실하여,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반기러 뛰어나가는 아버지”(17항)가 되려고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결의와 헌신의 표지로 교구에서는 성모당에 상설 고해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쁘게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교구 공문을 통해 알린 바와 같이 이 특별 희년에 수여되는 대사는, 대구대교구 안에서는 주교좌 계산성당과 교구 100주년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2016년 5월 15일 봉헌식 후), 성모당, 관덕정순교기념관, 복자성당, 한티순교성지, 진목정성지, 신나무골성지, 죽도성당, 가실성당 등을 순례하고 통상적으로 대사를 받기 위한 준비와 기도를 한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교우들이 대사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 대림 첫 주일에 저는 가정의 성화를 오는 한 해 우리 교구의 사목 지표로 삼은 바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람이 되시고 또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총으로 북돋아 주십니다. 이 자비의 희년에 특별히 상처받은 가정들, 위기에 처한 부모들과 자녀들, 그리고 버림받은 태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정한 한 마디의 말과 잡아주는 손길을 아쉬워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희년에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태도와 언행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심판하러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의 인자하심에 의탁하며, 특별히 자비의 모후이신 루르드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이윤일 요한, 그리고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께서 우리 교구와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이를 위하여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 조 환 길 타대오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이종현 요셉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그들이 우리보다 덜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상의 답변들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지난 10월 신입생 면접고사 때 신부들이 낸 면접 문제 중의 하나였던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요?”란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들이다. 본인이 채점관이 아니었기에 이같은 답에 대해 면접을 담당 한 신부들이 어떤 점수를 주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이 문제를 대한 학생들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답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만일 신앙인인 우리들이 이와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들 각자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

대림 3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는 이른바 “기쁨”의 주일을 지내고 있다. 특히 1독서와 2독서, 그리고 알렐루야에서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강조된다. 그런데, 이 기쁨이 진정 참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오로지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난 아기로 우리 인류를 위해, 무엇보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 진리 하나! 대림절도 중반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우리들 각자는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맞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

또한, 우리 교회는 대림 3주일인 오늘을 자선 주일로 지내고 있다. 자선,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줌”이란 뜻을 지닌 말이다. 그런데,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예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그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우리들이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기에,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성탄의 기쁨은 결코 혼자서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몸소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신앙인인 우리들이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며, 또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성찰하고, 그런 자선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드리자! **필요**

† 오늘의 전례

- | | | | | | |
|-------------|---|-------------|----------|-----------|-------------|
| 제1독서 | 스바 3,14-18ㄱ | 제2독서 | 필리 4,4-7 | 복음 | 루카 3,10-18. |
| 입당송 |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 | | | |
| 화답송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 | | |
| 영성체송 |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 | | | |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담아 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1요한 3,17)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국내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가 떠오릅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라는 가슴 아픈 일이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어떤 이들은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 경제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소식들을 접하는 요즘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삶을 찾아 목숨을 건 난민들의 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인들을 경악케 했던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가 더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런 아픔과 힘겨움의 시간 속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부활 제 2주일인 ‘하느님의 자비 주일’(4월 12일)에 우리 모두에게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신다고 발표하셨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에 ‘자비의 특별 희년’이 시작되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이 시작되고 자비의 문이 열리는 첫 주일에 교회는 서른 두 번째 자선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자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 36)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자선 행위로 시작되고, 그것이 자비의 해를 지내는 우리로 하여금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활 중에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다가올 구원의 기쁨을 미리 맛보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당신 또한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직접 오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선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1요한 3,18)할 수 있도록 생각과 행동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가 아직 다 돌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에페 4,22,24)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옷을 입은 자선으로 드러나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성탄과 더불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채우지 못했던 아쉬움과 허전함이 남아 있다면 이 대림 시기에 누군가를 채워 줄 수 있어서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12월 13일, 자선 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주교

소록도의 두 천사!

1916년, 이른바 문둥이라 불리던 100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소록도에 강제 격리되었습니다. 곁에만 있어도 전염된다는 오해로 1959년에는 격리인원이 6천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은 고작 5명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들어가길 꺼려하던 소록도에 20대 여성 두 명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간호사 마가렛과 마리안느 수녀님이셨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접촉을 기피하는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고 약을 바르는 두 수녀님의 손은 늘 맨손이었습니다. 약이 모자라면 오스트리아에 호소해 약을 가져와 치료했고 소록도의 쓰러져가는 집들을 직접 고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수녀회에서 보내는 생활비는 환자들의 간식비로 썼습니다. 두 수녀님의 선행은 무려 40여 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6천 명에 달하던 환자들은 600백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1일 두 수녀님은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소록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

상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짐이 된다 생각한 두 수녀님은 아무도 모르게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소록도를 떠날 당시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80대가 된 마리안느 수녀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한국말과 소록도는 잊혀지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지. 너무 행복했으니깐”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마가렛 수녀님은 여전히 그 때의 기억만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 네 등불이 되어 / 네 별이 되어 / 달이 되어 / 네 마스코트처럼 / 네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 나는 네가 되고 싶다 / 우린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소록도 병원 간호사실에 적힌 글귀) **필문**

금주의 성인

12월 13일	성녀 루치아(동정 순교자, 314년), 성 아우트베르트주교(강브레, 669년) 성 에드부르가(수녀원장, 7세기), 성녀 오틀리아(알자스, 660-720년) 복자 요한 마리노니(수도원장, 신부, 1440년), 성 유도코(신부, 은수자, 668년경)
12월 14일	성 니카시오(주교, 순교자, 랭스, 407년), 성 베난시오 포르투나토(순교자, 535-605년경) 성 스피리디온(주교, 증거자, 348년), 십자가의 성 요한(신비가, 교회학자, 1542-1591년)
12월 15일	성녀 마리아 크로치피사 디 로사(설립자, 1831-1855년), 성 막시미노(수도원장, 520년) 성 바오로(은수자, 라트로스, 956년), 성 발레리아노(주교, 증거자, 457년)
12월 16일	성 나발리스(순교자, 305년), 복자 세바스티아노 마기(수사, 브레시아, 1496년) 성녀 아델라이드(황후, 931-999년), 성 아도(주교, 비엔, 875년)
12월 17일	성녀 베가(과부, 수녀원장, 693년), 성녀 비비나(동정녀, 브뤼셀, 1170년) 성 스트루미오(수도원장, 풀다, 779년), 성녀 올림피아(과부, 여부제, 366-408년)
12월 18일	성 비네발드(선교사, 수도원장, 하이텐하임, 761년), 성 빅투로(순교자) 성 플란난(주교, 킬러루, 7세기경)
12월 19일	성 다리오(순교자), 성 아나스타시오 1세(교황, 401년), 성녀 파우스타(부인, 시르미움, 3세기) 복자 우르바노 5세(교황, 1310-1370년), 성 신디미오(순교자, 니코메디아, 303년)

■ 한국 주교단 평양 사목방문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2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셨다.

■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축복식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축복식이 12월 3일(목) 오후 12시 25분 전인병원 1층 입구에서 교구 총대리 하성호(요한) 신부님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50주간, 2015. 12. 13.~19.>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콜로새	1:2테살	1티모	2티모	티토·필레몬	히브1-6장	7-10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콜로새서』 - 종교혼합주의의 분위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중개자임을 강조하고 그분을 통한 하느님의 인류구원계획을 밝히고 있다.
- 『테살로니카1:2서』 - 예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될 완전한 해방을 갈망하며 일상 삶 안에서 형제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 『티모테오1:2서』 『티토서』 - 이들 서간의 주요관점이 초기 교회의 열정적 선교활동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세운 공동체의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목서간이라고 한다.
- 『필레몬서』 - 바오로의 따뜻한 감성적 내면과 노예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 『히브리서』 -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신 예수님' (1,1-3,6) / '대사제이신 예수님' (4,14-10,39) /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11-13장)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따끈한 붕어빵처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14일(월) 11:00 황성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4일(월)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4일(월) 11:00 신평성당	구미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2월 16일(수) 19:30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17일(목) 10:00 평화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2월 19일(토) 11:00 성모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4일(월) 11:30 범어성당	프란치스칸을 위한 후원회미사	12월 19일(토) 15:00 프란치스카눔

성소 | 피정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12.18(금) 23:00~20(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교육 | 모집

오순절평화의마음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화) 23:00~(수)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20:30
 수성구청 앞 21:00
 차량문의: 김명옥, (010)5529-3186

대구PBC 신앙특강 대구대교구 100년사
 부제: 함께 걸어온 우리 100년
 대구천주교인들 어떻게 살아왔나?
 특강일시: 매주(금) 10:00~11:30
 장소: 계산성당 1교리실 / 251-2654
 방송일시: 매주(금) 14:05~15:00

5차원전면학습코칭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12.29~31(42차) / 1.25~27(43차)
 장소: 구미선산청소년수련관

대상: 초·중·고·대생(선착순 30명)
 다음카페: 우아청 찰초 / 28만 원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제11회 평화방송 가톨릭 영어캠프
 예수회 신부님 영성수업과 성지 순례
 기간: 1.3(일)~30(토) 4주
 장소: 필리핀 마닐라 클리르리조트
 대상: 초 2학년~중 3학년
 문의: (02)734-0999 / www.pbc.co.kr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모집: 청소년영어캠프, 부모동반연수
 대학생 영어연수-해외봉사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센터
 출발: 1.3(청소년 4주, 대학 8주 이상)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제47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6~2.12(3, 5주 선택)
 대·일반: 1.3~2.14(6주, 장기 선택)
 세계 학생들과 함께 수업
 문의: 그린피스 이엔티, (02)3446-4253

살레시오 겨울 신앙학교
 일시: www.fmayouth.or.kr 참조
 장소: 광주광역시청청소년수련원

주제: 성인이 됩시다
 문의: (062)373-0942
 (010)8621-0940

김길수 교수와 함께하는 일본 성지 순례
 일본 성지 순례 4박 5일, 58만 원
 문의: 천주교사도직회(팔로티회)
 (010)4239-1929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팬션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
 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24평형 계약중, 35평형 마감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 모집
 마감: 1.31(일) / uus@pauline.or.kr
 과정: 친구약성경 입문(2년)
 방법: 우편과 이리닝학습(동영상 강의)
 원서: http://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4 / 0840~3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CT 및 초음파 검사
 영상투시 및 프롤로 치료
 뇌졸중, 치매, 어지럼증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내거리 ☎ 053)628-4111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이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대표전화 260-7777 (내선) 260-7575
 서부정류장 관문시장역(구달성군청지리)

대견신협과 함께하는
“바오로 사도”
 발자취를 따라서...
 터키, 그리스 - 12박 13일
출발일 : 2016년 4월 25일
T. (053)253-3399
 조 철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주)성기여행

미소나리 출장부페
 미소나리
 예약부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부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힐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Car Body Make-up
차량의 몸체에 화장을 입히자
 차량광고 전문업체 · 1급정비사업체
CBM 대동정비
 차량광고도색, 차량램핑, 실사출력
 학원차량전문, 기업차량도색 및 램핑
 특수도장 대형 열처리 부스 3기 보유
 www.dgcar.co.kr 황 용 호(루치아노)
 ☎053)963-4794 010-5913-8417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행사 | 모임

12월 예비신학생 방학 미사

일시: 12.20(일) 14:00

1~5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교구 모든 예비신학생을 위한 미사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제3회 청년국 윤일제(성가경연대회)

일시: 1.17(일) 14:00

장소: 앞산 청소년 수련원 대강당
마감: 1.5(화), 인터넷 심사
문의: cafe.daum.net/dg-youth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5회 7080 밥콘서트

일시: 12.27(일) 16:00, 19:00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 1만 원 후원: 매일신문, 가톨릭신문, 대구평화방송, 교구 청년국
문의: (010)9577-7819 / (010)4509-7016

교육 | 모집

12월 가나 강좌

일시: 12.20(일) 10:00~17:30(9:30 접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 접수(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12.13(일) 15:00 / 회비: 1만 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ME주말-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37차 ME주말: 1,8(금) 19:00~10(일)
338차 ME주말: 1,22(금) 19:00~24(일)
장소: 한티퍼정의집 / 문의: 983-0521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프란치스카눔 성경공부-마르코복음

기간: 2016.3월~5월 매주(수, 목)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수도원 뒤)
강사: 강주현(사도요한) 신부
문의: (070)4266-0047 / (010)9100-4114

2016년 해외선교사를 위한 교육

일자: 22차 2016.1.18(월)~2.18(목)
대상: 해외 파견 명령을 받은 선교사, 교포사목자
문의: 해외선교사 교육협의회 (02)953-0613

대가대평생교육원 겨울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학·아동학·실습 포함), 음악원(1:1레슨, 취미교양, 자격증과정)
모집: 12.18(금) / 문의: 660-5554~7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대준, 김진용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교구 심리상담소 소람 계약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소서
메일: kim-sinbu@hanmail.net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00~1

약목성당 청국장 판매

목적: 오르간 및 성당엠프 교체
100% 국산콩으로 직접 제조
가격: 두메 청국장 700g에 1만 원 4개 이상 택배비 무료
문의: (054)974-505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5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2016년 신안다이아러리
보다 세련되고
슬림한 사이즈의
2016년도 신안다이아러리 출시
판매: 1만 원
신청: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7~9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아육수(아네스) 010-5048-7739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오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종훈 (바로로)
진료 전문: 아토피 | 알레르기 | 시아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미용: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온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성당포켓 3번출구** T.053) 651-8800

작고 행복한 결혼식
하우스 웨딩 전문
메종 보네르
서현희 (헬레나)
☎ 053)421-3447
http://www.maison-bonheur.co.kr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자인라식 · 렌즈삽입술 · 노인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연세대의대학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 (053)626-8881~5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동 새마을금고 옆, 고산 도서관 옆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김경일 (아네스)